

94.6.14

대 학

○...서울지역 10여 대학의 여대생들이 방학을 맞아 미군 주둔지역을 방문해 매매춘 여성과 혼혈아동 등을 대상으로 '기지촌 활동'을 벌인다.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는 대학생 농촌활동이 끝나는 7월 중순부터 각 지역의 자선단체인 '다비타의 집' '참사랑 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대학별로 6박7일 동안 미군 주둔지역인 경기도 동두천·의정부·송탄 지역에서 탁아·실태조사 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건국대 부총여학생회장 공성민(23·정의4)씨는 "어두운 그늘에 가린 기지촌 여성과 어린이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기 위해 탁아활동뿐 아니라 시간을 내어 미군부대와 미군클럽

방학기간 '기지촌활동' 계획 '연세 여름 고교생대학' 협의

등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